



김제 신종마사협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3자 협약

김제시는 신종마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장택근 이하 신종마시협)이 김제신용협동조합(이사장 백강석, 이하 김제신협), 김제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김창환)와 함께 지난 3일 김제신협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마사협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종마시협은 신종마구 도시재생사업을 기반으로 설립된 주민 주도 조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거점시설의 관리와 운영, 생활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내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종마시협은 거점시설 운영 및 지역 기반 사업을 추진하고, 김제신협은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조합 운영에 필요한 금융 지원과 협력 기반을 제공하며, 김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행정적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노암동, 독거 어르신 대상 '파티플래너' 이벤트

남원시 노암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진중훈)는 지난 3일, 관내 독거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특화사업인 '파티 플래너'가 되어드립니다.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 부재로 생신을 홀로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연간 1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지역사회 보정협의체 위원장이 직접 일일 파티플래너가 되어 어르신께 특별한 이벤트를 선사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맞춤형 생신 상차림 △생신 축하 노래 및 케이크 촛불 끄기 △생필품 선물 꾸러미 전달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되어 어르신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으며, 어르신은 "자녀가 세상을 떠난 후 잊고 지냈던 생일을 당사무소에서 직접 챙겨주니 너무나 고맙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이백면, '장수 축하잔치' 개최

남원시 이백면은 경로당에서 마을 내 장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장수 축하잔치'를 개최하며 따뜻한 지역공동체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산남마을 경로당을 시작으로 연간 8회 '1일 1가구 소동행진'을 통해 발굴된 장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것으로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정성껏 준비한 생일상과 함께 생활에 필요한 선물을 전달하고,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어르신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수목 식재 나서

김제시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최근, 식목일을 앞두고 벽골제 관광지 일원에서 수목 식재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관광지 경관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직원들을 중심으로 약 30명이 참여해 현장에서 직접 식재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참여자들은 농경사주제관과 소나무 등산, 상설체험장 주변 등 주요 구간에 남천, 철쭉, 동백, 측백, 수국 등 약 300주를 식재했으며, 구역별로 나누어 작업과 주변 정비를 병행하여 관광지 전반의 경관을 정돈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컨벤션 공사 현장 근로자 건강 관리 '맞손'

롯데건설, 고려대 의료원 교류협력
전주대자이병원과 상호 협약 체결



롯데건설의 '전주 전주컨벤션센터 신축공사 현장'이 6일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거점 병원인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류협력 대자이병원'과 상호 협력 체결을 통한 현장 안전강화에 나섰다.

전주의 새로운 경제 거점이 될 '전주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번 협약은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투입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현장과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류협력 대자이병원 응급센터 간 '직통 응급 의료 핫라인'을 가동한다. 현장에서 부상자 발생 시 즉시 이송 및 우선 처치가 가능한 체계를 갖춰 응급 대응력을 높였으며, 의료 전문가가 현장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심폐 소생술(CPR) 및 기초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현장 근로자 스스로의 대응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건관리도 한층 정교해진다. 롯데건설과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류협력 대자이병원은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건강검진과 맞춤형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자의 평소 건강 상태를 면밀히 체크해 고위험군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사고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전주의 미래를 짓는 대규모 프

젝트인 만큼 '무재해 현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며 "지역 거점 의료기관인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류협력 대자이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류협력 대자이병원은 최근 '전주정원산업박람회' 등 전주시 주요 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한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이번 협약 역시 지역 내 대형 프로젝트에 지역 자원이 결합하는 우수한 상생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내·의 전지 면적 2만㎡와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회의실, 20실 이상의 중소회의실 등을 갖춘 연면적 8만3000㎡ 규모로 건립되는 전주컨벤션센터는 오는 2028년 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으로 롯데건설과 전주시 지역 의료기관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중심의 완벽한 시공을 이어갈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대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선서식 거행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간호학과는 지난 3일 교내 II아트홀에서 예비 간호사로서의 사명감을 다지는 제16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서식은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학과 3학년 73명의 학생들이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와 책임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학부모와 내빈, 교수진 등이 참석해 예비 간호사로서 첫 걸음을 내딛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허명률 간호학과장은 "나이팅게일 선서는 전문직 간호사로서 삶을 시작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도 간호의 본질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돌봄에 있는 만큼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실습 현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배우며 성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로알리온지' 개점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미정)는 6일, 고창군민의 전문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로알리온지'를 개점했다.

'로알리온지'는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에 특화된 장소로 농협은행 WM부문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의 세무·부동산·연퇴설계 등의 재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미정 지부장은 "로알리온지 개점은 단순한 수익사업보다 고창군민을 동반자로 생각하며, 고객님의 효율적인 자산 운영을 최우선 목표로 두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로알리온지 전담팀장인 박지효 팀장은 WM관련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중이며, 자산컨설팅에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완주산림조합, 학교숲 가꾸기 식목행사 진행

완주군(전주)림조합(조합장 임필환)과 숲사랑봉사단(단장 박영철)은 지난 3일 완주 경천면 가천초등학교에서 봉사단과 전교생이 함께 참여한 학교 숲 가꾸기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학교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화된 금강화를 포함하여 꽃잔디, 블루베리 등을 심고 학년별 학생들이 직접 묘목을 옮겨주어 내 나무라는 애정을 갖도록 하여 아이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식재 행사 후 봉사단과 함께하는 즐거운 전래놀이 한마당이 펼쳐져 웃음과 활기가 넘치는 하루가 되었다.

이번 학교숲 가꾸기 행사는 완주군림조합의 지원과 숲사랑봉사단의 헌신이 어우러져 더욱 의미 있는 자리로 남았다. 앞으로도 완주군림조합과 숲사랑봉사단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환경교육 및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문화생태환경보전회, '제2회 아중천 벚꽃나들이 행사' 개최

7000여명 주민 참여,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

문화생태환경보전회(대표 김중기)는 지난 4일 우이2동주민센터 앞 아중천 일원에서 '제2회 주민과 함께하는 아중천 벚꽃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봄철을 맞아 지역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지역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7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으며, 오전 10시 30분 동 노래교실과 가수 공연 등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과 다목적 버스 운영이 진행됐다.

특히 화합 마당이 펼쳐진 오후 시간에는 시립국악단, 아중중여민합창단, 청소년 보컬밴드 '파소', 미술공연 등 13개의 수준 높은 공연이 이어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어 진행된 주민 장기자랑과 경품 행사 등도 주민들의 호응 속에 치러졌다.

또한, 행사장 일대에 마련된 음식 및 물품 판매 부스는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 속에 공식 행사가 끝난 저녁 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이웃 간 정을 나누는 교류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중기 대표는 "많은 주민이 참여해 이웃과 함께 교류하



고 화합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끈끈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벚꽃나들이는 1984년 김용식 전 전주시의원(당시 우아2동, 3선)이 200주를 기증했다. 김 전 의원은 현재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우이2동 분회장으로 3선에 당선됐다. /권희성 기자

품목 다변화·농가 지원 성과 인정... 복지사업도 '호평'

정우창 여산농협 조합장,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

여산농협 정우창 조합장이 농업인 실익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 성과를 인정받아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을 수상했다.

전북농협은 지난 3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정우창 조합장이 해당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상은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조합장에게 수여된다.

정 조합장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품목 다변화와 영농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블루베리 저온유동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유통 기반 마련에 힘썼으며, 올해 3월에는 마늘 작목반 농작업 대행 보조 사업을 시행해 농가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지난해에는 콩 작목반을 새롭게 구성하고 계약재배를 추진했다. 콩 콤비와 선풍기 도입을 통해 수확과 선별 과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농업인의 노동 부담



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이와 함께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 물품 대상자에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지역 복지 향상에 힘써왔다. /오상근 기자

전은, 무주 아침해지역아동센터에 'JB 희망의 공부방' 개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무주군 아침해지역아동센터에 'JB 희망의 공부방 제21호'를 열고 아동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나섰다.

전북은행은 6일 무주군 아침해지역아동센터에서 'JB 희망의 공부방 제21호' 오픈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침해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복지기관으로 2010년 설립 당시 오래된 농가주택을 리모델링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 이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은 두 개의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에 설치된 노후 지붕의 누수를 막기 위한 보수작업을 진행하고, 낡은 빗물 받아를 새로 교체했다. 이와 함께 책장과 학습용 TV, 냉장고 등 다양한 물품도 지원해 아동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



서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날 오픈식에는 무주군 노창한 부군수와 아침해지역아동센터 나창호 센터장, 전북은행 최종구 부행장, 국충만 무주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오상근 기자

결론

▲최성준(최장학) 완주농업기술센터 소장·국문순씨(장남)군= 일시: 11일(토) 오후 5시, 장소: 전주그랜드힐스컨벤션 웨딩3층 세인트홀(전주시 완산구 서곡5길22-5)